213. 클리닝 의류 사고사례
(80) 폴리염화비닐을 사용한 풀 오버

□ 폴리염화비닐을 사용한 풀 오버

해설)

◦ 드라이클리닝 후 왼쪽 겨드랑이 부분의 패치소재가 경화되어 손상됨. 폴리염화비닐(PVC)은 상온에서는 딱딱한 수지이지만, 프탈산 등의 가소제를 첨가하면 상온에서도 부드러짐. 가소제는 드라이클리닝 용제에 쉽게 용해되는 경우가 많아 가소제가 빠져나갈 경우 경화가 발생됨.

◦ 수지가 폴리염화비닐인지는 바일슈타인(Beilstein) 반응이라고 하는 불꽃반응 시험 방법으로 판별하는데, 이 소재의 경우 청록색 할로겐 반응이 나타나 폴리염화비닐일 가능성이 크다고 할 수 있음.

◦ 가소제는 드라이클리닝 용제에 의해서만이 아니라 장기간에 걸쳐 서서히 없어져 폴리염화비닐이 경화되어 금이 가게 되는데, 유사한 예로서는 폴리염화비닐을 깐 사무용 의자 등에서 자주 볼 수 있음.

◦ 이 제품은 울을 주 소재로 하여 물세탁에 의한 기계적 작용으로 수축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물세탁은 곤란하며, 또 앞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드라이클리닝에서는 가소제가 용출되기 때문에 드라이클리닝도 할 수 없는 제품이라 할 수 있음.

◦ 제조업자는 드라이클리닝 불가로 표시를 고치는 것과 동시에, 부기 표시로서 염화 비닐 사용 제품인 취지를 소비자에게 알려야 하는 것이라 할 수 있음.

♠ 자료출처 : 송종욱 역, 세탁에서 나타나는 문제의류 사고사례 도감, 한국세탁업중앙회, 2011

www.textilecare.kr